

수용자의 교정심리검사와 교정상담 평가의 예측타당도 연구 : 수용자의 5년 후 재범과 규율위반 예측*

이수정⁺ 이인희
경기대학교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은 실증적 자료를 통해 예측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국내 교정현장에서 분류심사 시에 사용되는 교정심리검사와 교정상담 측정치의 예측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율위반 행위와 재범을 추적조사 하였다. 5년 전에 수거되었던 재소자들의 자료를 추적하여 그동안의 규율 위반행위와 재범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교정심리검사와 교정상담평가는 나름대로 예측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규율 위반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전과횟수와 교정상담 측정치인 교도소 처우에 대한 태도, 문제유발 가능성, 그리고 교정심리검사의 비행습관이 유용하였고, 재범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전과횟수와 교정심리검사의 범죄적 사고가 유용한 지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위험성 평가 분야에서 정적 위험요인 이외에 역동적 위험요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

주요어 : 규율위반, 분류처우, 위험성 평가, 재범

범죄적 위험성 평가를 위해 20세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공식적인 기록이나 인구통계학적 자료,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왔다(Howitt, 2002). 국내에서 역시 수용자의 시설 내 적응과 규율위반에 대한 예측치로서 재소자들의 성격특성과 심리적 요인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참조, Clements, 1996; Edens, Petrila, & Buffingron-Vollum, 2001; Van Voorhis, 1994), 사실상

이와 같은 요인들은 과거 국내 교정행정 현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절차 상에서는 수형자를 신입 심사하는 단계에서 분류심사, 즉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는 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¹⁾에 따르면 분류처우의 목적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 심사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수형자의 반성과 노력의 정도

* 이 논문은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금(KRF-2004-074-HS0009)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이수정,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 249-9198, E-mail : suejung@hanmail.net

1) 수형자분류처우규칙 [법무부령 제541호 일부개정 2003.11.24.]

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수형자로 하여금 스스로 개선하고 보다 빨리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류심사 유예 대상자²⁾를 제외한 수형자는 입소 시에 받는 신입심사와 수용 중 받는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분류처우 회의를 통해 분류와 처우가 결정된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³⁾에 따르면 제12조 분류조사 시에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성장과정, 학력 및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및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상담관찰 사항, 자력 개선의지 및 석방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고 있다. 또한 제13조에 따르면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자와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자를 제외하고 신입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교정심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규정상으로는 분류심사 단계에서 수용자들의 심리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분류의 결과를 수용시설 할당 등 구체적으로 형 집행에 반영해야 하는 시점에 가서는 수용자들의 성별이나 연령 등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서만 전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수용자의 심리특성이 수용자 분류 및 처우의 적용에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은 평가도구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부족과 그에 따른 이해부족, 그리고 한국 형사정책 체제의 옹보주의적 행형철학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즉 누구라도 일정 기간을 구금시키면 반성의 계기가 되어 죄질이 개선될 것이기에 굳이 수용자 개인의 심적 변화나 특성을 수용에 반영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수용기간 동안 보안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전제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옹보주의 철학은 여러 경험적 범죄연구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고 특히 개인별 범죄학적 원인을 차별적으로 조명하는 범죄심리학적 연구들에 의해 강력하게 비판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적 범죄이론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정심리검사와 상담관찰 사항이 수용자 개인별로 시설수용 기간 동안의 문제행동과 출소 후의 재범을 예측하는 데에 실증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개별화된 처우의 적용을 위한 토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형사사법제도와 위험성 평가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평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의 의사결정자들은 시민의 보호를 염려하여야 한다. 이는 판결자들의 의사결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미래 행동(위험성, 재범)에 대한 평가는 범죄특성(범죄, 폭력, 재산, 마약), 사건정보, 범죄자의 범죄경력, 그 외 교육정도나 직업, 사회 결속력과 같은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예측된다 (Steffensmeier & Demuth, 2000).

Tony(1987)는 판사, 가석방 위원회, 교정 집행자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범죄자의 명백한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측정확성이 향상되면 고 위험 범죄자들에게 자원을 집중할 수 있고, 저 위험 범죄자들에게는 좀 더 관대한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범죄를 통제하고 형사사법기관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상이한 판결은 감소하고, 부당한 처벌로 고통 받는 범죄자도 궁극적으로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미래의 범죄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형사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재범에 대한 예측은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수사, 재판, 교정 등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하여서는 신상을 공개한다거나 전자팔찌 등을 통해 추후 관리를 시도한다. 교정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용자에 대한 초기 분류심사 과정에서, 그리고 가석방의 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정단계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분류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관심 사항이 달라진다. Austin(2003)은 위험성 평가를 교정 분류 시스템(prison classification system)과 공공 위험성 평가 시스템(public risk assessment system)으로

2)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제 3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1. 집행할 형기(형집행지휘서의 접수일로부터 형기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3월 미만인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구울위반으로 조사중이거나 징벌집행중인 경우
4. 기타 분류심사를 거부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541호 일부개정 2003.11.24.]

나누어 그 차이를 설명한 바 있다. 교정 분류 단계에서는 수행자들이 관리를 받게 될 수준에 따라 구급단계 중 적절한 기관에 그들을 할당한다.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탈출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구분하는 것이 주 관심사이다. 또한 위험성의 평가를 통해 사동이나 사방의 지정, 처우 수준, 교정 프로그램 내용 등을 결정하여 효과적으로 수용자를 관리한다.

반면 공공 위험성 평가 시스템은 범죄행동과 관련된 요인에 관심이 있다. 이 평가시스템은 출소 이후 다시 감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범죄자를 구분하기 위해 보호관찰, 가석방, 가석방 위원회에서 주로 사용된다. 즉 이 평가시스템은 범죄자를 다시 체포될 가능성, 관리규칙을 위반할 가능성, 결국 다시 감금될 가능성 등에 기초하여 보호관찰이나 가석방을 신고하는데 주로 사용하며 구급이나 계호 지정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분류심사는 다만 일종의 행정규칙에 준하여 실시되는 의무적 절차이며 그에 대한 결과는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자면 국내 분류심사 절차의 목적은 매우 모호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외국문헌들에 근거하여 추정하자면 교정심리검사를 포함한 국내 분류심사 절차의 최종적인 준거변수는 교도소 내에서의 관리상 의 문제나 출소 후 재범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해내는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재소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일의 목적은 교정 분류를 위한 것이거나 공공에 대한 위험성을 예측해내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성 평가도구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범죄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많다. 계호나 처우를 결정하기 위한 범죄자 평가의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는 임상적 평가법이 있다. 이 평가법은 비표준화 절차에 따라 정신과 의사 등의 임상전문가가 범죄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한 후, 그들의 재범위험성에 대해 주관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판단을 하는 절차도 대표된다.

최근에는 기존의 임상적 평가법의 주관성이 적법절차로서 상당한 하자가 있음이 지적되면서 대신 통계적(actuarial) 평가법이 보다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다. 통계적 평가법은 재범 예측력에 있어서도 임상적 평가법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줌이 확인되었다(Bonta et al., 1998; Grove, Zald, Lebow, Snitz, & Nelson 1995; Hanson & Bussier, 1998; Mossman, 1994).

통계적 위험성 평가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평가도구들을 사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재범의 예측에 관한 판단증거로서 이들 계량적 평가의 결과는 적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최근에는 개인 내적인 역동적 위험요인을 기존 정적 요인들(전과기록, 죄명 등)에 더하여 재범을 더 정확하게 예측해내고 있다. 이때 정적 위험요인 변하지 않는 범죄자의 과거와 관련된 요인으로 나이, 범죄전력 등이 포함되고 역동적 위험요인은 변하기 쉬워서 처우의 대상이 되는 반사회적 태도, 가치, 행동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역동적 위험요인들은 교육정도/직업, 생활에서의 중요한 관계, 알코올/마약 남용, 정신건강문제, 반사회적 태도 등이다(참조, Andrews & Bonta, 1998; Simourd, 1997; Simourd & Andrews, 1994).

Bonta(1996)는 위험성 평가절차에는 세 가지 세대(three generations)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1 세대 위험성 평가는 비공식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한 전통적인 주관적 임상 판단이며 2 세대 위험성 평가는 연구에 의해 타당화 된 명백한 준거로 구성된 통계에 기초한 것이라 한다. 2 세대 위험성 평가도구에는 주로 범죄경력 같은 정적(static) 위험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The Salient Factor Score(SFS) (Hoffman, 1994)가 대표적인 2 세대 평가도구이다. SFS는 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이외에 범죄 관련 변수(범죄 종류, 전과 횟수, 보호관찰 기록, 초범 연령)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세대 위험성 평가 도구는 역동적 위험 요인(범죄적 태도나 범죄조직 가입 여부)을 포함한다. 3 세대 도구의 이점은 처우의 계획과 재활 서비스의 제공 등 교정기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수행자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Bonta(1996)의 기준으로 보자면 국내의 분류심사 절차는 교정심리검사와 교도관의 상담결과 등을 포함함으로써 상당수의 역동적 위험요인을 포함하는 3 세대 도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구 중 상당히 개선된 체제에 해당하는 3 세대 도구의 결과를 행정상에서는 실제로 크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위험성의 평가도구가 재소자들의 미래 위험행동의 예측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

범죄 예측연구

수용자의 문제행동 예측 연구

범죄자들의 수감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연구는 재범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Austin(2003)은 재소자의 수감기간 동안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성별이 여성인 경우 문제행동에 덜 연루된다고 보고하였다. 반대로 폭력경력이 있거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많을수록 수감기간 동안 문제행동에 관여될 가능성은 많다고 한다. 또한 폭력조직의 일원일수록,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을수록, 최근(12개월 이내) 구울 위반 경력이 많을수록 미래에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고 한다.

Cunningham과 Sorensen(2006)은 The Risk Assessment Scale for Prison(RASP; 이하 RASP라고 명명)을 사용한 수형자의 폭력적인 위험성 평가 연구에서 어린 나이와 짧은 형기가 수감자의 폭력적인 문제행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RASP(Risk Assessment Scale for Prison)는 재소자의 폭력적 문제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개발되었으며 위험성 평가와 분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한 도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정시설에서의 폭력적 문제행동 가능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나이, 형량, 교육정도, 이전 수감 기간, 이전 보호관찰 기간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형기가 짧을수록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았다. 반대로 과거 구금 경력(범죄경력)이 많았을수록 수용 중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았다.

재범 예측 연구

재범예측에 많이 활용되는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Hare, 1991)과 LSI-R(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Andrews & Bonta, 1998)이 있다. PCL-R은 정신병질적 요소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동적 위험요인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면 LSI-R은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36개는 역동적 요인을 18개는 정적 요인 측정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Gendreau, Little, & Goggin (1996)은 재범과 관련된 131개의 연구를 메타분석을 한 결과 이들 도구들의 재범 예측력이 매우 의미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LSI-R의 정적 위험 요인 중에서는 나이, 범죄 전력, 성인기 이전의 반사회적 행동력, 가족 범죄력, 가족 구조, 성별, 지능 구조, 인종, 가족(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하였고 역동적 위험 요인들 중에서는 반사회성, 조직 범죄 가입 여부, 범죄적 욕구, 물질남용, 사회적 성취(교육 정도, 수입) 등이 의미 있었다. 이 중에서도 범 죄전력과 범죄적 욕구의 재범예측력이 가장 우수하였다. PCL-R의 재범예측력을 보고하는 연구는 많다(Hare, 1996; Hare, Forth, & Stachan, 1992; Harris, Rice, & Cormier, 2002; Douglas, Ogloff, Nicholls, & Grant, 1999). PCL-R의 폭력성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평균 예측력(AUG)은 약 .68, 신체적인 폭력에 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73, 성폭력에 관한 평균 예측력(AUC)은 약 .69 정도라고 알려진다. 이는 전과 등의 정적 위험요인의 재범예측력이 .60 정도를 상회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추정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적 맥락에 따라 국내의 현행 분류처우 심사절차, 그중에서도 특히 교정심리검사와 교정상당 평가가 교정 분류 시스템(prison classification system)과 공공 위험성 평가 시스템(public risk assessment system)으로서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현행 분류심사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교정심리검사는 이수정, 이윤호, 공정식(2000)이 개발한 것으로서 요인

4) AUC(Area Under Curve)는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분석에 의해 산출된다. 원래 신호잡지이론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ROC분석에서의 ROC는 4 가지 예측가능성에 근거한다. 우선 위험하다고 예측한 범죄자가 후에 진짜로 재범을 하는 경우(TP; True Positive), 위험하다고 예측하였으나 재범을 하지 않는 경우(FP; False Positive), 위험하지 않다고 예측하였던 범죄자가 나중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TN; True Negative), 위험하지 않다고 예측하였으나 후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FN; False Negative) 등이다(Metz, Wang, & Kronman, 1984). 이 네 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예측력에 관한 두 가지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측도구의 민감성(sensitivity)과 한정성(specificity)이다. 참고로 민감성 지표는 TP/(TP+FN)으로 한정성 지표는 TN/(FP+TN)으로 산출한다. 이들 두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정한 재범자를 잘 맞출 확률과 진정한 비재범자를 잘 맞출 확률은 증가하게 되면 이들의 누적합수인 AUC(Area Under Curve)는 커진다.

분석 등을 통해 선정된 총 175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수정, 변지은(2001)은 전국에서 모집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 허위척도 이외에 여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교정심리검사는 전과 및 수감기간 중의 문제행동 등과 의미있는 타당도 지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뢰도나 타당도 지표들이 개발단계에서부터 보고되고 있는 교정심리검사에 비하여 교정상담 평가도구는 교정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재소자들에 대한 신입심사 과정 중 교도관들의 상담결과들을 토대로 임의로 작성되는 이 도구에 대해서는 개발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도구는 관찰평가법을 택하고 있는데, 따라서 평가자간 합치도가 매우 중요한 신뢰도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결과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다. 다만 문항들 간의 내적합치도는 이수정, 변지은(2001)에 의해 보고된 적이 있다. 이들 두 도구가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내용은 응답자들의 반사회적 태도 비행행동습관, 상담 시 재소자들이 보여 준 적대적 태도 등, 대부분 역동적 요인들이었다.

본 연구는 현행 분류심사 절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들 두 도구의 예언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예측의 준거지표로는 심사 후 5년까지의 규율위반 여부를, 공공에 대한 위험성 지표로는 출소 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때 추적 기간은 심사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이었고 피조사자들은 이수정, 변지은(2001)의 연구에 참여하였던 재소자들 중 출소자들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전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정적 위험요인인 범죄관련 변수들 이외에 수용자들의 심리특성, 예컨대 교정심리검사나 교정상담 평가 등을 통하여 측정된 역동적 위험요인들도 수용자들의 수용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이나 재범을 예측하는 데에 유의한 예측력을 지닐 것인지 하는 점이었다.

연구방법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이수정, 변지은(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2000년 전국 교정시설 중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할당 표집 하여⁵⁾ 얻어진 1,337명의 대상자들을 2005년에 추적한 결과 1명을 제외한 1,336명이 출소하였고 이들의 재 징벌 여부와 재범 여부가 조사되었다. 이 중 교정심리검사나 교정상담 평가 점수가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한 자료는 제거 한 후 최종적으로 695명의 출소자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⁶⁾

이들 중 남자는 617명(88.8%)이 있었고 여자는 78명(11.2%)이 있었다. 남자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0.37(7.73)세였고 여자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7.03(6.56)세였다. 2000년 당시 피조사자의 죄명은 편의상 이홉 개의 범주-강간, 강도, 강도강간, 살인치사, 절도, 폭행, 약물, 사기, 기타로 분류하였고 분포는 다음과 같다. 강간 86명(12.4%), 강도 131명(18.8%), 강도강간 25명(3.6%), 살인 및 살인치사 230명(33.1%), 절도 28명(4.0%), 폭행 66명(9.5%), 약물 22명(3.2%), 사기 50명(7.2%), 기타 57명(8.2%)이다.⁷⁾

비행경력을 보았을 때 초범이 225명(32.4%), 1범이 193명(27.8%), 2범~4범이 146명(24.4%), 5범 이상이 35명(5.0%)이다. 최초 경찰 입진 연령은 10대가 279명(40.1%)이고 20대는 187명(26.9%), 30대 이상이 107명(15.4%)이다. 당시 수용자들의 징벌횟수는 징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517명(74.4%)이고 징벌을 한번 받은 사람이 11명(1.6%), 2번이 120명(17.3%), 3번 이상이 47명(6.7%)이다.

범죄 동기는 고의의 경우 503명(72.4%)로 가장 많았고 흥기사용은 소지 사용이 292명(42.0%), 미사용이 280명(40.3%)이다. 합의 여부는 미합의가 449명(64.6%)로 가장 많았고, 검거유형은 체포가 83.2%를 차지했다.

범죄 관련 사항 외에도 본인의 응답을 토대로 기타 일상생활 사항과 직업 사항, 그리고 보호자 관련 사항들이 수집되었다.

5) 본 연구에 사용되었던 자료는 교정심리검사 개발을 위해 2000년도에 전국 30개 교도소에서 50명씩 할당 표집하여 수거되었던 자료 중 일부를 5년 후 추적하여 수거된 자료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하여서는 이수정, 변지은(2001)의 연구를 참조하라.

6) 변수별 수용자 통계의 합계가 100%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는 5년 전의 자료를 추적한 것이었기에 자료 중 누락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7) 살인 및 살인치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유는 애초에 자료가 수거되었던 교도소는 대부분이 중구급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입소 전 직업 근무 경력은 무직이 187명(26.9%), 3년 이하 근무는 221명(31.8%), 3년~5년 근무는 69명(9.9%), 5년 이상 근무는 218명(31.4%)이다. 혼인 상태는 결혼 상태인 사람이 178명(25.6%)이고 미혼(이혼, 사별 포함)이 516명(74.3%)이다.

응답자들 중 양부모가 생존하여 있는 사람은 313명(45.0%), 편모나 편부만 있는 사람은 259명(37.3%)이고 평균 월수입은 약 158만원이고 월평균 접견횟수는 1.97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

교정상담 측정치의 아홉 문항, 교정심리검사의 일곱 개의 하위척도가 분석에 포함되었고, 이전의 다른 연구들에서 범죄위험성을 예측하는 강력한 인자로 보고된 전과횟수를 분석에 포함하여 총 17개의 변수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독립변수

전과횟수 : 정적 요인 중 유일하게 분석에 포함되었던 예측치는 실험전과 횟수였다. 수용자들 중 초범이었던 자는 225명(32.4%), 1범이 193명(27.8%), 2범~4범이 146명(24.4%), 5범 이상이 35명(5.0%)이었다. 분석에 포함되었던 수용자의 평균 전과횟수는 4.47(SD=3.69)번이었다.

교정상담 측정치 : 수형자들의 담당 교도관은 신입 및 정기심사 때 수형자들의 상담태도 및 문제가능성에 대하여 총 9문항에 대답하여야 한다. 우선 수형자들의 형벌에 대한 태도, 처우에 대한 태도, 교도관에 대한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 4점 척도 상에 응답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 심각성, 문제유발가능성, 재비행가능성, 위선행동가능성, 전반적인 상담 태도에도 4점 척도 상에 판단하여야 한다. 이 모든 문항들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이거나 매우 양호하면 4점, 긍정적이거나 양호하면 3점, 부정적이거나 불량하면 2점, 매우 부정적이거나 매우 불량하면 1점이라 응답하게 된다. 개별 수용자의 교정상담 측정치는 자기 개별적으로 교도관들에 의해 평정되기에 평가자간 신뢰도는 산출할 수 없었으나 이수정과 변지은(2001)의 연구에서는 문항들 간 내적 합치도가 .76이었다

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남은 응답자들의 교정상담 측정치의 내적 합치도는 .8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정심리검사 : 교정심리검사는 법무부와 이수정, 이윤호, 공정식(2000)의 연구에 의해 개발된 객관적 위험성 평가 도구로 기존의 심리측정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형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범죄적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교정심리검사는 수형기간 중의 문제행동을 예측하여 개선급과 관리급 등 수용자의 처우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교정심리검사는 총 175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도구로 응답은 그렇다, 아니다 둘 중 하나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다. 타당도 척도인 허위 척도와 여섯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이 검사는 비행습관, 공격성향, 범죄적인 사고경향, 자포자기 경향, 자살소망, 망상경향을 측정하며, 상당한 신뢰도 및 타당도 증거를 확보한 위험성 평가 도구이다. 각 하위 척도들 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7에서 .90의 범위에 있으며 표 1은 각 하위 척도 문항의 예이다.

종속변수

수형자의 규율위반과 재범에 대한 준거 지표로서 선행 연구(이수정, 변지은, 2001)에서 2000년도에 수집되었던 1336개의 표본 중 2000년 조사 이후, 5년 후 추적 가능성이 695명의 징벌 여부와 재범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로서 5년 후의 징벌 여부와 재범 여부를 선택하였던 이유는 Austin(2003)이 지적한 대로 위험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시설 내 수용기간 동안 교정 분류 시스템(prison classification system)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실시되거나 출소 이후 공공 위험성 평가 시스템(public risk assessment system)을 위해 사용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교정단계의 분류 시 중요한 준거지표는 결국 징벌 사실로서 판정될 수 있으며 출소 후 공공에 대한 위험지표는 재범 여부로서 정의될 수 있다. 최종적인 준거지표로서 징벌 여부에 대하여서는 2000년 조사 이후 출소 전까지 징벌을 받았는지 조사하였고, 또한 재범 여부에 대하여서는 참가자들이 출소 후 2005년까지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조사하였다. 징벌이나 재범 기록이 없는

표 1.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척도 문항 예

하위척도 구분	문항의 내용
비행습관	내 친구 중에는 말썽을 일으켜 경찰관에게 체포되기도 했다. 과거에는 전과 있는 친구라든가 범죄조직과 가깝게 지냈다. 젊었을 때 나는 패싸움을 한 적이 있다. 학창시절 문제를 일으켜 처벌(근신, 정학, 퇴학 등)을 받은 적이 있다. 여러 명과 함께 도둑질한 경험이 있다.
공격성향	누가 나에게 언성을 높이면 나도 마주 대고 언성을 높이는 편이다. 자꾸 귀찮게 구는 사람은 한 대 맞아도 싸다. 정말 화가 나면 누군가를 갈겨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나를 먼저 치면 나도 그에게 한방 먹이겠다. 말다툼을 할 때 나는 목소리를 높이는 편이다.
범죄적 사고	큰돈을]버는 유일한 방법은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내게 필요한 유희비나 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할 수 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둑질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살기 힘들만큼 가난하다면 남의 것을 훔쳐도 된다.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돈 없고 힘없는 자만 처벌받는 것 같다.
자포자기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하다. 가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종종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내 가족과 친구들은 이제 나에게 대해 거의 포기했다. 차라리 살아있지 않기를 원한다.
자살소망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를 생각했다. 자살하게 되면 유서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나는 내 자신의 장례식을 떠올려 보았다.
망상경향	나도 모르게 괴상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하루 종일 공상이나 환상에 시달린다.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무 이유도 없이 혼자 흥분해서 난리를 친 적이 있다.

경우는 0으로, 기록이 있는 경우는 1로 코딩되었다. 분석에 포함되었던 수용자들 중 출소 후 이미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113명(16.3%)이었소 2000년도 이후 행형기록 상 징벌을 받았던 사람은 135명(19.4%)이었다.

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방법

과거 전과횟수, 교정상담 측정치, 교정심리검사가 수용자의 규율위반과 재범을 예측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 SPSS 12K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용 중 징벌여부와 출소 후 재범여부에 따른 집단 간 변수 비교를 위해 t검정을 하였고, 두 준거 지표에 대

규율 위반 예측 요인

규율 위반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전과횟수를 t 검증한 결과, 징벌을 받지 않은 수용자의 평균 전과횟수는 4.18(SD=3.658), 징벌을 받은 수용자의 평균 전과횟수는 5.61(SD=3.586)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t=-3.886, p<.001$). 즉, 수용 중 규율위반 및 문제행

표 2. 교정상담 측정치의 *t* 검증

	재징벌여부	평균	표준편차	<i>t</i>
내담자 현재의 문제 심각성	징벌없음	1.90	0.687	-1.873
	재징벌	2.04	0.818	
내담자의 형벌에 대한 태도	징벌없음	2.16	0.574	-2.244*
	재징벌	2.29	0.621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	징벌없음	1.94	0.636	-0.514
	재징벌	1.97	0.610	
교도소 처우에 대한 태도	징벌없음	2.17	0.521	-3.843***
	재징벌	2.41	0.683	
교도관에 대한 태도	징벌없음	2.07	0.475	-2.647**
	재징벌	2.23	0.646	
문제유발 가능성	징벌없음	2.04	0.628	-4.583***
	재징벌	2.32	0.642	
출소 후 재비행 가능성	징벌없음	2.11	0.681	-3.134**
	재징벌	2.32	0.709	
위선행동 가능성	징벌없음	2.09	0.606	-2.100*
	재징벌	2.21	0.628	
상담관찰시 상담에 임하는 태도	징벌없음	1.89	0.533	-1.591
	재징벌	1.98	0.592	

note : **p*<.05, ***p*<.01, ****p*<.001

표 3. 교정심리검사의 *t* 검증

	재징벌여부	평균	표준편차	<i>t</i>
비행습관	징벌없음	6.9071	5.71117	-6.362***
	재징벌	10.4222	5.97316	
공격성향	징벌없음	8.9089	5.95757	-5.414***
	재징벌	12.0593	6.51263	
범죄적사고	징벌없음	3.0321	3.58825	-4.594***
	재징벌	5.1333	5.01312	
자포자기	징벌없음	3.6893	3.44441	-4.045***
	재징벌	5.4444	4.74997	
자살소망	징벌없음	3.6518	4.55990	-3.899***
	재징벌	5.6963	5.66644	
망상경향	징벌없음	2.8482	3.45067	-3.589***
	재징벌	4.2148	4.08745	
허 위	징벌없음	7.9643	4.14782	1.137
	재징벌	7.5185	3.83980	

note : ****p*<.001

동으로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과 횡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와 표 3은 규율 위반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교정상담 측정치와 교정심리검사를 *t* 검증한 결과이다. 표 2를 보면 내담자의 형벌에 대한 태도, 교도소 처우에 대한 태도, 교도관에 대한 태도, 문제유발가능성, 출소 후 재비행 가능성, 위선행동 가능성이 규율 위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3의 교정심리검사는 타당도 척도인 허위 척도를 뺀 나머지 비행습관, 공격성향, 범죄적 사고, 자포자기, 자살소망, 망상경향이 모두 규율 위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도관이 평가한 재소자의 형벌에 대한 태도, 교도소 처우에 대한 태도, 교도관에 대한 태도, 시설 내 문제유발가능성, 출소 후 재비행 가능성, 위선행동 가능성과 수용자들이 직접 응답한 교정심리검사에서 징벌을 받은 자는 유의미한 차별성을 보였다.

t 검증을 통해 징벌 여부에 따른 집단 별 변수들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산출된 변수들은 미래의 징벌여부를 예측하는 데에 유의미한 예측치가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특정 독립 변수의 순수 영향력을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수인 징벌 여부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분형 변수이므로 다중회귀분석대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전과횡수, 교정상담 측정치, 교정심리검사의 하위요인들이 징벌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총 17개의 독립 변수 중 전과횡수, 교도소 처우에 대한 태도, 문제유발 가능성, 비행습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7, N=695)=69.710$ *p*<.001, -2LL=533.084).

즉, 교도관들에 의해 문제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교도소 처우 태도에 불만이 많다고 판단될수록, 과거 범죄 경력과 청소년기 비행행동의 습성이 많을수록 수용 중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재범 예측 요인

출소 후 재범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전과횡수를 *t* 검증한 결과 재범을 하지 않은 수용자의 평균 전과횡수는

표 4. 규율위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B	S.E.	Wald	유의확률	Exp(B)
전과	전과횟수	0.058	0.029	3.924	0.048	1.060*
교정상담 측정치	문제심각	0.121	0.171	0.499	0.480	1.128
	형벌태도	0.118	0.210	0.316	0.574	1.126
	죄 의 식	-0.385	0.209	3.410	0.065	0.680
	처우태도	0.492	0.242	4.131	0.042	1.636*
	직원태도	-0.216	0.272	0.636	0.425	0.805
	문제가능	0.677	0.318	4.517	0.034	1.968*
	재비행가	-0.073	0.301	0.060	0.807	0.929
	위선행동	-0.160	0.266	0.362	0.547	0.852
교정심리 검사	상담태도	-0.092	0.252	0.131	0.717	0.913
	비행습관	0.066	0.028	5.621	0.018	1.069*
	공격성향	0.027	0.030	0.814	0.367	1.027
	범죄적사고	0.008	0.043	0.034	0.854	1.008
	자포자기	-0.007	0.046	0.023	0.880	0.993
	자살소망	0.022	0.031	0.477	0.490	1.022
	망상경향	-0.028	0.045	0.382	0.537	0.972
	허 위	-0.026	0.030	0.778	0.378	0.974

note : * $p < .05$

표 5. 교정상담 측정치의 집단 간 t 검증

	재범여부	평균	표준편차	t
내담자 현재의 문제 심각성	비재범	1.92	0.704	-1.001
	재범	1.99	0.773	
내담자의 형벌에 대한 태도	비재범	2.17	0.586	-0.940
	재범	2.23	0.583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	비재범	1.93	0.622	-1.662
	재범	2.04	0.667	
교도소 처우에 대한 태도	비재범	2.20	0.559	-1.266
	재범	2.27	0.586	
교도관에 대한 태도	비재범	2.09	0.508	-1.381
	재범	2.17	0.549	
문제유발 가능성	비재범	2.07	0.634	-2.461*
	재범	2.23	0.655	
출소후 재비행 가능성	비재범	2.11	0.683	-3.596***
	재범	2.36	0.695	
위선행동 가능성	비재범	2.09	0.618	-2.216*
	재범	2.23	0.567	
상담관찰시 상담에 임하는 태도	비재범	1.91	0.557	-0.204
	재범	1.92	0.484	

note : * $p < .05$, *** $p < .001$

3.92(SD=3.253), 재범을 한 수용자의 평균 전과횟수는 7.22(SD=4.433)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7.082, p < .001$).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과거 범죄 경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5와 표 6은 출소 후 재범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교정상담 측정치와 교정심리검사를 t 검증한 결과이다. 표 5를 보면 문제유발가능성, 출소 후 재비행 가능성, 위선행동 가능성에서 재범연구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6의 교정심리검사는 타당도 척도인 허위 척도와 망상경향 척도를 뺀 나머지 비행습관, 공격성향, 범죄적 사고, 자포자기, 자살소망에서 재범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도관이 평가한 문제유발가능성, 출소 후 재비행 가능성, 위선행동 가능성과 수용자들이 직접 응답한 교정심리검사의 망상경향을 제외한 나머지 척도 모두 재범을 저지른 자와 재범을 하지 않은 자에 따라 결과가 유의미하게 차이를 알 수 있다.

표 7은 앞의 규율위반 예측 요인 분석에서와 같이 전과횟수, 교정상담 측정치, 교정심리검사가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실시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전과횟수와

표 6. 교정심리검사의 t 검증

	재범여부	평균	표준편차	t
비행습관	비재범	7.2457	5.95708	-3.504***
	재범	9.3628	5.44135	
공격성향	비재범	9.2938	6.16033	-2.200*
	재범	10.6903	6.24654	
범죄적사고	비재범	3.1460	3.71918	-3.717***
	재범	4.9558	4.90879	
자포자기	비재범	3.8608	3.67429	-2.424*
	재범	4.9027	4.27193	
자살소망	비재범	3.8900	4.80479	-1.961*
	재범	4.8673	5.06829	
망상경향	비재범	2.9897	3.54221	-1.906
	재범	3.7522	3.95630	
허위	비재범	7.7852	4.05686	-1.353
	재범	8.3540	4.24878	

note : * $p < .05$, *** $p < .001$

교정심리검사의 범죄적 사고 척도가 재범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chi^2(17, N=695)=75.470, p < .001, -2LL=464.838$). 즉, 과거 범죄 경력이 많고 범죄

적인 사고와 반사회적 태도를 보일수록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규율 위반 예측 요인 연구와 재범 예측 요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과거 범죄 경력이 많고 교도관들에 의해 교도소 처우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고, 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실제로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공격성이나 범죄성은 규율 위반을 예측하는데 좋은 변수가 아니었다. 반면에 재범 예측에는 범죄성이 영향력을 미쳤다. 전과횟수가 많고 범죄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클수록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변수별 예측력을 보면 전과횟수는 수용자의 문제행동과 재범을 모두 예측하는 변수였다. 상습 범죄자가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용 중에도 규율 위반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도관들이 수용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평가하는 교정 상담 측정치는 재범을 예측하기에는 유용하지 않았지만, 재소자들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데는 영향력이 있었다. 문제유발가능성 점수가 높을수록 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수용자가 교도소 처우

표 7. 재범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B	S.E.	Wald	유의확률	Exp(B)	
전과	전과횟수	0.197	0.031	39.758	0.000	1.217***	
	문제심각	-0.103	0.183	0.313	0.576	0.903	
교정상담 측정치	형벌태도	-0.079	0.228	0.119	0.730	0.924	
	죄의식	0.140	0.205	0.467	0.494	1.150	
	처우태도	0.059	0.272	0.048	0.827	1.061	
	직원태도	-0.071	0.297	0.057	0.812	0.932	
	문제가능	-0.076	0.330	0.053	0.819	0.927	
	재비행가	0.352	0.317	1.239	0.266	1.423	
	위선행동	0.095	0.286	0.111	0.739	1.100	
	상담태도	-0.127	0.282	0.201	0.654	0.881	
	교정심리 검사	비행습관	0.034	0.031	1.205	0.272	1.034
		공격성향	-0.053	0.033	2.575	0.109	0.948
범죄적사고		0.129	0.050	6.756	0.009	1.138**	
자포자기		-0.026	0.050	0.266	0.606	0.975	
자살소망		-0.025	0.039	0.416	0.519	0.975	
망상경향		-0.024	0.051	0.218	0.640	0.976	
허위		0.039	0.030	1.736	0.188	1.040	

** $p < .01$, *** $p < .001$

에 대해 불만이 많을수록 수용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규율위반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교정심리검사에서는 비행습관은 규율위반을, 범죄적 사고는 재범을 예측하기에 좋은 변수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범죄위험성 예측 요인 연구에서 비행습관과 범죄성(반사회적 태도 및 사고)이 주요 예측 요인으로 나왔던 선행연구(이수정, 변지은, 2001; Gendreau et al., 1996)와 같은 결과로 교정심리검사가 범죄위험성을 예측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범죄자의 위험성 평가, 수형자 분류 처우, 가석방 심사는 모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효과적으로 수형자를 분류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목적에 알맞은 위험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객관적 위험성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재소자들이 수용 중에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나 출소 후 다시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에 앞서 평가 도구의 예측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객관적 위험성 평가 도구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러한 도구들이 수형자의 규율위반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교정단계 중 분류심사 시에 수행되는 교정심리검사와 교정상담 측정치의 규율위반 행위와 재범예측 효과를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소자들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하여 규율 위반과 재범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정심리검사와 교정상담평가는 나름의 효과성을 발휘하였다.

특히 전과 횡수 이외에 교정심리검사의 비행습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를 예측함에 있어 유의한 결과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문제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참조, Austin, 2003; Cunningham & Sorensen, 2006). 즉 시설에 수용된 동안의 문제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는 성격특성보다는 과거의 행동력이 매우 유의하다는 것이다. 5년이 경과하였을 시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전과 횡수와 교정심리검사의 범죄적 사

고가 포함되었다. 하지만 교정상담 측정치는 시설 수용 기간 동안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데에는 일부 척도들이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재범을 예측하는 데에는 어느 요인도 포함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들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 적이 있는데, LSI-R을 이용한 재범예측 연구(Simourd, 2004)에서는 범죄경력과 태도 요인이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의미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때 태도 요인은 범죄 지지적, 반관습적, 양형에 부정적, 관리감독에 부정적 태도들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범죄 지지적 태도와 반 관습적 태도는 교정심리검사의 범죄적 사고와 매우 비슷한 척도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간주할 수 있다. Gendreau와 동료들(1996)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범죄전력과 범죄욕구가 재범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나와 교정심리검사의 범죄적 사고 척도는 전회횟수 이외에 재범을 예측하는 주요 척도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전과 횡수는 심리측정학적 척도들보다 수형자의 수감 중 문제행동이나 출소 후의 범죄행동 가능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정적 요인인 전과 횡수 이외에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비행습성이 있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이 많고 교도관들에 의해 문제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경우 규율을 위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이와 조금 달리 전과 횡수 이외에 범죄적 사고를 많이 할수록 출소 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교정심리검사와 교정상담 측정치가 위험성 평가 도구로서 어느 정도 효과성은 검증이 되었지만, 규율위반과 재범을 예측하기 위해 전과 횡수 이외에 전반적인 정적 요인의 예측력을 살펴보기에는 본 연구의 예측변수들이 지나치게 한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전과 횡수 외에도 범죄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정적 요인(인구학적 특성 및 과거 범죄 관련 지표)들은 수없이 많을 수 있다. 더 많은 정적 위험 요인들을 예측 변수로 분석에 포함시켰다면 연구결과가 지금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견해본다.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결과의 해석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범죄행동 관련 지표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후

속 연구에서는 수감 기간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Cunningham & Sorensen(2006)은 짧은 형량을 받은 재소자 일수록 폭력적인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수감생활이 짧을수록 긴 형량을 받은 사람보다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덜 할 것이고 따라서 규율을 위반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시간을 하나의 변수로 설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에 있어서는 시간 변수에 대한 보다 치밀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재범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아쉽다. 범 죄자들의 죄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범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동정전과인지 이중전과인지에 따라 죄질의 상습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출소 이후 재범까지의 시간 역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현희(2004)는 범행 가능 시점부터 범행까지의 시간을 조사하여 생존분석을 한 결과 재범을 저지르는 시기에 따라 범행 관련 요인이 달라짐을 보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재범기간이나 재범내용을 조사하여 재범을 야기하는 요인들의 유기적 관련성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여러 하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재범위험성을 예측함에 있어 역동적 위험요인과 정적 위험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여 준다. 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개발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 도구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제작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이들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꼭 유의하여야 하는 점은 객관적 위험성 평가 도구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예측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 도구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평가절차의 신뢰성과 타당성 증거들이 확보될 수 있을 때만이 평가절차나 그 결과도 그 정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1996년 5만9700여명에서 점차 증가해 1999년 6만8000여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2005년에는 5만2403명, 2006년(4월 기준)에는 4만 6148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재소자가 교정직원을 폭행하거나 재소자간의 폭행과 같은 교정사고는 3배 이상 증가했다(박형민, 2006). 이는 교도소 내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

낸다. 재소자 통제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정직원을 대폭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한정된 자원 안에서는 위험성 평가 도구와 분류를 이용하여 수용자들의 위험행동 가능성을 예측 관리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의사결정자들은 재소자가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계호수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지, 언제 석방하여 어떤 관리 아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연구자들은 위험성 평가와 분류 처우에 대한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형민 (2006). 교정사고의 발생추세와 현황. 형사정책연구소식 95, 45-55.
- 이수정, 공정식 (2006). 교정심리학. 서울: 양현월드.
- 이수정, 변지은 (2001). 수형자 분류심사 도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349-387.
- 이수정, 윤옥경 (2003). 범죄위험성의 평가와 활용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99-126.
- 이수정, 이윤호, 공정식 (2000). 수형자들의 위험성 요인분석과 변별도구 개발. 형사정책연구, 11(3), 145-178.
- 이윤호 (1999). 형사정책. 서울: 박문각.
- 이현희 (2004). 재범요인에 관한 인과적 분석: 형벌과 사회적 결속. 교정연구, 24, 88-110.
- Andrews, D. A., & Bonta, J.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2nd ed.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
- Austin, J. (1986). *Objective prison classification systems: A review*.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 Austin, J. (2003). *Findings in Prison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Prisons Division.
- Bloom, H., Webster, C., Hucker, S., & De Freitas, K. (2005). The Canadian Contribution to Violence Risk Assessment: History and Implications for Current Psychiatric Practic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 50(1), 3-11.
- Bonta, J., Law, M., & Hanson, R. K. (1998). The prediction of crimin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39, 127-144.
- Bonta, J., Law, M., & Hanson, R. K. (1998). The prediction of criminal and violent recidivism among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39, 127-144.
- Brennan, T., & Wells, D. (1992). The importance of inmate classification in small jails. *American Jails*, May/June, 49-52.
- Clements, C. (1996). Offender classification: Two decades of progres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121-143.
- Cunningham, M. D., & Sorensen, J. R. (2006). Actuarial models for assessing prison violence risk. Assessment,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3(3), 253-265.
- Douglas, K. S., Ogloff, J. P., Nicholls, T. L., & Grant, I. (1999). Assessing risk for violence among psychiatric patients: The HCR-20 violence risk assessment scheme and the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 917-930.
- Edens, J. F., Petrila, J., & Buffington-Vollum, J. K. (2001). Psychopathy and the death penalty: Can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identify offenders who represent a continuing threat to society? *Journal of Psychiatry & Law*, 29(4), 433-448.
- Farrington, D. P. (1983). Offending from 10 to 25 years of age. In K. T. Van Dusen, & S. A. Mednick (Eds.), *Prospective studies of crime and delinquency*. Boston: Kluwer-Nijhoff.
- Gendreau, P., Little, T., & Goggin, C. (1996). A Meta-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Adult Offender Recidivism: What Works! *Criminology*, 34(4), 575-608.
- Grove, W. M., Zald, D. H., Lebow, B. S., Snitz, B. E., & Nelson, C. (1995). *Clinical vs. mechanical prediction: A meta-analysis*. Unpublished manuscript.
- Hanson, R. K., & Bussier, 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48-362.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1996). Psychopathy: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25-54.
- Hare, R. D., Forth, A. E., & Stachan, K. E. (1992). Psychopathy and crime across the life span. In R. D. Peters, R. J. McMahon, & V. L. Quinsey (eds.), *Aggression and Violence Throughout the Life Span*. Newbury Park, CA: Sage.
- Harris, G. T., Rice, M. E., & Cormier, C. A. (2002). Prospective replication of the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in predicting violent recidivism among forensic patients. *Law and Human Behavior*, 26, 377-394.
- Hoffman, P. B. (1994). Twenty years of operational use of a risk prediction instrument: Th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s Salient Factor Scor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2, 477-494.
- Howitt, D. (2002). *Forensic and Criminal Psychology*. Pearson Education.
- Lowenkamp, C. T., Holsinger, A. M., & Latessa, E. J. (2001). Risk/need assessment, offender classification, and the role of childhood abus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8(5), 543-563.
- Megargee, E. (1994). Using the Megargee MMPI-based classification with the MMPI-2's of male prison inmates. *Psychological Assessment*, 6, 337-344.
- Mills, J. F., Kroner, D. G., & Hemmati, T. (2003). Predicting violent behavior through a static-stable variable le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8), 891-904.
- Monahan, J. (1981). *The clinical prediction of violent*

- behavior*. Rockville, MD: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Mossman, D. (1994). Assessing predictors of violence: Being accurate about accur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783-792.
- Quay, H. (1984). *Managing adult Inmates: Classification for Housing and Program Assignments*. College Park, MD: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 Silver, E., & Chow-Martin, L. (2002). A multiple models approach to assessing recidivism risk.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9(5), 538-568.
- Simourd, D. J. (1997). The criminal sentiments scale-modified and pride in delinquency scal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4, 52-70.
- Simourd, D. J. (2004). Use of dynamic risk/need assessment instruments among long-term incarcerated offenders. *Criminal justice behavior*, 31(3), 306-323.
- Simourd, D. J., & Andrews, D. A. (1994). Correlates of delinquency: A look at gender differences. *Forum on Corrections Research*, 6(1), 26-31.
- Steffensmeier, D., & Demuth, S. (2000). Ethnicity and sentencing outcomes in U.S. federal courts: Who is punished more harshl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 705-729.
- Tonry, M. (1987). Prediction and classification: Legal and ethical issues. In D. M. Gottfredson & M. Tonry(Eds.), *Prediction and classification: Criminal justice decision making*(pp.367-41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n Voorhis, P. (1994). *Psychological classification of the adult male prison inmate*. Abl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Van Voorhis, P., Braswell, M., & Lester, D. (2000). *Correctional counseling & rehabilitation*. OH: Anderson.
- Zamble, E., & Quinsey, V. L. (1997). *The criminal recidivism proces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ttp://nicic.org>

Predictive Validity of Korean Correctional Personality Inventory and Correctional Officer's Rating Scale : A 5-Year Follow-Up Study to Predict Inmates' Rule Infractions and Recidivism

Soo Jung Lee In Hee Lee
Kyonggi University

Lots of empirical research is needed to testify predictive effectiveness for risk assessment instruments associated criminal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ify predictive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officer's rating scale and the KCPI(Korean Correctional Psychological Inventory) about rule infractions and recidivism. The analysis suggests that along with criminal history, attitude against correctional treatment and likelihood of dangerous behavior among officers' evaluation sub-scales, and delinquent behavior of KCPI were useful indicators of inmate misbehavior. Also, criminal history, and illegal thoughts of KCPI were useful indicators of recidivism.

Keywords: Classification; Recidivism; Risk assessment; Rule infraction

원고접수 : 2007년 2월 22일
심사통과 : 2007년 3월 22일